

성경적인 남성상

참된 남성상은 어디에 있는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남성상은 없을까? 남성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은 바른 남성상을 제시한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성상 모델이다. 남성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남성이 어떤 존재론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시다.



첫 피조물로서의 남성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남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창조하셨다 (창 1:26~28). 사도 바울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고전11:7)이라고 표현했다. 조지신학자 안토니 후르머는 “남성 창조에서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남자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투영(mirror)하고, 하나님을 대표(represent)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남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존재였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였다. 첫 피조물인 남성은 순결했고, 죄가 없었으며, 거룩했다. 오늘날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함과 죄성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남성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다. 첫 남성의 타락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인 삶이 방황이 바뀌게 되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거부해야 할 어그러진 남성상의 첫 출발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창세기 3장은 최초의 범죄에 대한 비극적인 설명과 그것이 물고 온 파국적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였음에도 죄인을 대면하기 위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남자를 찾으셨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the man)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현재형)”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정보를 묻는 차원을 넘어 고백

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창지기의 책임을 남용한 사실을 남자에게 상기시키신다. 아담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자다움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과거형)”는 질문을 통해 아담이 그의 ‘남자다움’이라는 창지기를 가지고 무엇 을 했는지, 하와와 함께 하는 가정에서 지도력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내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도록 버려두었는지, 사탄의 유혹 앞에 있는 아내에게 첫 남성이(아담) 미친 영향력은 무엇이었 는지를 묻으신다.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남성 - 족장

인류의 역사는 한 남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최초의 남성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은 첫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과 계속해서 인연관계를 유지하신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었다. 하나님은 가정과 민족을 위한 언약 체결의 데 표자로 남성을 선택하셨다. 언약의 대표자와 맺은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졌고,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진 축복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의 내용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전통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창 48:15, 대상 29:18)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승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남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자로 서 가정의 중심이었으며 부족의 중심이었다. 남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데(고전 11:3) 머리로 하는 단어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 뿔’이다. 곧 아버지는 가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오는 ‘머리’(kephale)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족장이나 지도자를 가리킬 때 쓰였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는 권위의 의미가 있다. ‘머리 뿔’이란 결혼관계에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가족을 이끌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 완벽한 남성 -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 완전한 남성상을 찾길 원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 모든 남성은 죄의 흔적을 지닌 흠 있는 자들이다. 믿음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 위대한 신앙인들에게서 흠 없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이상적인 남성상은 참사람이시며 참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1)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왕은 질서를 유지해주며, 안정감을 마련해 주는 사람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를 이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왕이므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 선한 왕은 힘이 있는데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도

와주는 데 사용한다. 또한, 신한 왕은 모든 남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엡 2:3) 죄의 종이(롬 6:17), 원수였(롬 5:10) 사람들을 주님은 징벌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자유롭게 하셨다. 왕의 왕으로서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왕이 되셨다. 세상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삶은 "포로 된 자를 자유를 논면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눅 4:18)하시는 사랑의 왕이시다.



2)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화해와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이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생겼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걸음과 접이 없는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처럼 제사장직은 그리스도께만 속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씻으

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남과 것처럼 기독교인의 정의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남이다. 이것이 올바른 정의이다.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다리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세태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보여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시대에 요청되는 남성상의 중요한 모델이다.

3)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눅 4:18)하기 위한 사역을 하셨다. 사 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을 따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의 헛된 논쟁을 바른 진리로 정리해주셨다(마 12:1-8). 생업의 타진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잘못된 전통에 매여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자유를 선언하셨다(요 4장). 아담에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준수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따름을 가르치셨다(눅 18장). 남성들은 사회 속에서 신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 해서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줄 아는 진정한 남성이 되어야 한다.

4) 기록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기록한 용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용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대의(大義)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문체를 가지고 고인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죄(사탄)와 진쟁을 벌이셨다.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에 분노하신 예수님은 과감히 도전하셨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내어 쫓으시는가 하

면, 사회적인 소외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과도 어울리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애쓰셨다. 예수님은 죄와 율법과 당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싸우시는 기록한 용사이셨다.

기록한 용사는 같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닌 자신의 사랑을 무기로 삼아 모든 원수를 멸하고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남성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남성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이 이러한 용사의 마음이다. 남성 우월주의를 내세우기 이전에 사랑을 통한 섬김을 통해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들이어야 한다.

5)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회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 배설과 영원히 연합할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하시기 직전, 다음과 같은 우정 어린 말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이것은 사랑, 헌신, 약속을 포함한 연합의 말씀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기쁨을 버치게 만들어 주며, 용기를 채워 주는 친구이었다.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눅 12:4)라는 표현을 통해 권위를 내세우는 자의 모습 이 아닌 참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기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과 친구이었다. 자신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마 11:19)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잘 알고 지내던 나사로의 죽을 앞에 눈물을 흘리셨다. 아픈고 힘든 자들을 볼 때면 단숨에 긍휼히 여기는 정도를 뛰어넘어 그들의 고통을 체휼하셨다(마 4:15). 예수님이 아말로 참된 친구의 우정을 실천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남성의 역할: 가정과 사회에서의 비렬직한 남성상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는 사회의 건설자이다. 남자가 가정으로서 굳건히 서고, 힘과 보호로 안정감을 제공하여 그의 가족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사회는 즉시 유익을 얻는다. 사회건설을 위해 남자다운 능력을 사용할 때, 세상은 더 좋고 더 안전한 장소가 된다. 교회 를 이끌든지 가정을 이끌든지 간에 지도자로서의 의 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모범을 통한 지도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가정 안 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게 될 때 권위가 부여되 며, 가족을 공통의 목표 아래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첫 피조물인 남성은 온 땅을 다스리는 명령과 하나님 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 건설의 위탁을 받은 책임 있 는 존재였다. 첫 피조물인 남성은 순결했고, 죄가 없 었으며, 기복했다. 현대 남성들의 목표는 창조되었 던 순간의 남성상에 대한 회복이다. 책임 있는 존재 로서 사회와 가정에 지도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 복하고,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자 신의 가정을 가정 친국으로 만드는 데 달려있다. 진 정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이 많은 사회 는 비전이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영적 지도 력을 바로 세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남성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6



이민수 남성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사랑의교회 가정사역 담당 목사, 숭실대학 교 평생교육학 박사, 저서로, 「이름 수 도 없는 미혼이다」, 「한국경제신문」, 「두 리뉴얼」(영림출판)이 있다.